

“疾病의 효율적인 予防法개발에 주력”

— 健康한 사람을 보다 더 健康하게



金貞順 회장

- 疾病의 효율적인 예방법 개발은 물론이고 ○
- 健康人을 보다 더 健康하게 하기 위한 연 ○
- 구를 하는 학문. 바로 疫學이 추구하는 궁 ○
- 극적인 목표이다. ○
- 최근 예방의학이나 보건학 분야는 말할 ○
- 것도 없이 의학분야에서 疫學이 차지하는 ○
-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질병의 本態을 ○
- 연구하는데나 예방치료대책을 마련하는데 ○
-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 지난 79년 인간집단에 발생 분포하는 각 ○
- 종 질병의 발생기전 및 효율적 관리방법 ○
- 에 의한 과학적인 연구와 그 지역의 보급 ○
- 을 위해 설립된 韓國疫學會 金貞順회장 ○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을 만나 우리나 ○
- 라 疫學의 현재와 함께 당면과제가 무엇 ○
- 인가 알아본다. ○

『疫學은 그 개념이 정립되기 전인 1930년대 이전에는 傳染病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근래에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인간집단내에서 발생하는 生理的상태까지도 포괄하는 학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즉 질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질병이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疫學會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는 金貞順박사는 疫學은 人間集團내에 발생하는 生理的상태 및 이상상태의 빈도와 분포를 기술함은 물론 이들의 빈도와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구명함으로써 효율적 予防法을 개발하는 학문이라고 소개한다.

金회장은 질병은 어느 한가지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질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다 찾아내어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임상의학이 환자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역학은 환자나 건강한사람, 즉 인간집단 모두에게 관심을 갖는 학문으로 건강한 사람을 보다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역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한다.

『비타민C가 同定되기 오래전에 괴혈병이

신선한 야채나 과실의 섭취가 부족할때 발생한다고 발견한 것이라든지, 역학이 질병예방에 공헌한 예는 많습니다」金회장은 예방의학이나 보건학분야는 말할것도 없이 전 의학분야에서 역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전제하면서 근래에는 사회적 병리현상까지도 역학의 연구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에따라 역학의 연구방법론 또한 중요해 실험대상이 되는 인간에게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동물실험시와 같은 효과를 얻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놓는다. 또한 임상의학에서 내놓는 논문들이 좋은 자료를 갖고도 방법론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아쉬워한다.

『역학이란 분야는 누구나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듯 하면서도 실제응用に 있어서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학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金회장은 특히 역학적조사 혹은 연구라는 제목이 붙은 논문가운데서 설정된 가설이나 일련의 관련성도 없이 단순히 집계된 통계자료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극히 선택적인 특수집단인 특정병원의 환자집단을 마치 전지역사회의 일반집단처럼 취급함으로써 마치 국민 전체의 몇십%가 무슨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위험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이것은 건강문체에 관심을 가진 국민전체에 그릇된 정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해 한다.

따라서 金회장은 이러한 역학지식의 올바른 이해와 보급 및 새로운 정보교환에 바람직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학회의 의무요 역할이라고 말한다.

韓國疫學會는 「인간집단에 발생 분포하는 각종 질병의 발생기전 및 효율적 관리방법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동시에 그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1979년 2월 창립됐다. 疫學會는 창립 첫해에 WHO의 후원으로 疫學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해마다 종합학술대회와 외국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최신정보 교환에 힘써 왔으며 특히 學會誌에 독창성 있는 우수한 논문들을 수록, 역학지식 보급에 주력해 왔다.

『역학의 역사가 짧아 용어내지 어휘의 통일뿐만 아니라 개념정립도 안된 상태라 역학지식의 올바른 보급과 함께 한국풍토에 맞는, 개성있는 학문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당초의 설립 취지였습니다』金회장은 설립당시를 회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역학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불과 20년 남짓된다고 소개한다.

『역학은 보건학과 예방의학의 한 기초 분야로서 보건통계학과 함께 보건대학원을 위시하여 의과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간호전문대학, 그리고 보건전문대학등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강의되어 왔으며 여러 관련분야연구에 널리 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염성이 주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등 성인병연구와 지금껏 원인규명이 안돼 있는 암과 같은 불치병의 발생원인등도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밝힌다.

『특히 우리보다 잘 못사는 서태평양지역 나라들에 대한 역학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해서 올바른 역학지식을 보급했으면 합니다』 金회장은 역학개념과 그 응용에 대한 체계화내지 통일화된 지식의 보급은 물론 새롭고 정확한 역학정보의 교환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역학을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학문으로 정립시키기 위해서 국적있고 개성있는 역학의 정립뿐만아니라 올바른 지식의 보급 및 새로운 정보교환에 바람직한 매개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작정』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현재 이 학회의 회원은 모두 150여명.

(權光仁 記)